

<발표 1>

종교의 미래와 원불교의 혁신방향

원익선(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I. 시작하는 말

이제 3년 후면 원불교의 2세기를 열어가게 된다. 1916년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으로 시작된 원불교의 미래는 원불교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이를 태어나게 한 한국사회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간의 여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원불교의 존재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원불교는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종교적 가치를 구현해왔던가,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과연 원불교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 줄 것인가, 원불교는 과연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인가 등등 많은 면에서 분석과 해석이 난무할 것이다.

종교 그 자체의 열망으로 도전과 응전을 해온 원불교로서는 이에 대한 성숙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연기(緣起)적 관계로 이 사회와 깊은 관계를 통해 소위 4대 교단의 반열에 올라선 이상, 수많은 대중들의 질문 공세에 대한 공적인 지위에 걸맞는 대답을 통해 공공의 종교로서 그 위상을 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치뤄야 할 통과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

문제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부정적인 종교 환경에 대해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인터넷과 같은 문명을 가져온 제3의 혁명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과연 종교는 무슨 의미인가라는 진지한 의문으로부터,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실재하는가라는 대중들로부터의 냉소적인 외면에 부딪힌 이 시기, 원불교는 또 하나의 실험에 지나지 않는 군소종교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이웃한 나라들에서는 불교를 비롯하여 여러 종교가 세포분열을 하거나, 기성 종단을 무시라도 하듯 각자(覺者)들에 의해 새로운 종교운동이 공교롭게도 불같이 일어난 것이다. 한 두 세기 전에 일어난 종교 운동, 그 가운데는 실패한 운동도 있고, 성공한 운동도 있다. 또한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진 종교도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는 원불교는 어떠한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냉정한 판단

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좀 더 여유를 두고 판단하자.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받기 전, 원불교 2세기를 맞아 과거를 돌아보며, 교단의 이모저모를 한번쯤 혁신을 통해 리모델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전모를 논해보고자 한다.

II. 종교의 미래

종교의 미래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교의 미래는 있다고 한다. 필자도 있다고 본다.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이 횡행하고 있고, 인간사회의 불안 요인은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엽, 불교사상에 기반한 혁명으로 새로운 중국을 만들고 싶었던 비운의 혁명가 탄스통(譚嗣同, 1865~1898)¹⁾은 사회진화론의 중국유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선도 진화하지만 악도 진화한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종교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견해로 부터일 것이다. 수단과 방법이 전도된 지는 오래다. 인간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던 근대 인간 주체의 사상은 이제 폐기처분되었다. 그러고도 근대의 극복이니, 포스트모더니니, 후기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인간을 놓고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고 뒤늦게나마 인간이야말로 이 세계를 창조 도 하고, 파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닐까.

종교의 미래는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종교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는 절실한 이유를 가진 자에 의해 그 이유가 대중에게 설득력을 지닐 때, 비로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파괴로 인해 인류가 공멸에 처하기 전, 종교에 의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설명되고, 전 세계의 대중이 이것을 흔쾌히 동의함과 동시에 이를 종교적 방법에 의해 실천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종교의 존재의미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자면 생존의 임계선을 넘어서 있다. 이것을 자각하도록 하지 않는 한 종교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원불교도 마찬가지이다. 무명에 싸인 전 인류를 향해 자신의 종교적 사명을 철저히 자각한다면 존재의 가치는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가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각 한 종교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종교의 미래는 이제 전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도 아니고, 당위의 영역에서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제까지 그러한 전망은 충분히 해왔다. 지구 전체의 운명과 함께 하며, 인류 한 명 한 명의 의식을 일깨우는 작업에 동참한다면 어떠한 긍정적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1) 그는 1898년 중국의 무술유신운동(戊戌維新運動) 중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우리의 의지대로 이 지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로 종교적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종교적 패러다임으로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행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교단없는 종교다. 따라서 지역을 떠나 성속의 경계도, 남녀의 구별도, 인종의 차별도 없는 종교의 세계가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기성종단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 것이다.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던 종교가 이제는 영성의 확장을 통해, 얼핏 종교적인 정열은 유지하되, 들여다보면 기존 종교의 틀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영성이야말로 종교 고유의 영역이 아닌가. 하지만 대중은, 영성의 발현은 ‘지금 이곳’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종교 스스로 외쳤던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단이다. 원불교의 문제도 이러한 종교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현명하게 유지하면서 존재할 것인가가 과제다. 사실 사회학에서 볼 때, 조직은 하나의 넌센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이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인간이 조직을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하게 된 것이다.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없을까. 유대를 놓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자유스러운 움직임 속에서도 종교적 세계관이 확대되는 종교. 인터넷으로 국가의 경계선이 무의미하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미래학자들의 말처럼 미리 앞서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5만년 대운을 바라보는 원불교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인간이 선하게 진화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영성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세계일 것이다.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종족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완전한 평화와 지복을 누리는 총체적인 영적 네트워크로 승화되는 방향일 것이다. 오늘날 기계적으로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체가 아닌 영적인 조직, 영적인 네트워크의 종교, 그것을 대중은 열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단계가 인터넷 혁명이다. 이는 과편화되는 개인화의 반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인간의 속성이 그러한 것이었다. 태생적으로 종족의 울타리를 수 만 년 간 유지해온 인류의 심리적 유전자는 근 3백년간에 걸친 산업화의 과정에서 강제로 분열을 자초한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반사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사람이 모이면 20개의 소모임이 생기는 역설이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교단 없는 교단. 여전히 서구에서는 실험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밀라노나 피렌체의 유명하고도 화려한 두오모(Duomo) 성당에 고작 해야 일주일에 서너 명이 미사를 보는 이러한 현상으로 결코 종교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수많은 관광객들은 그러한 화려함에 종교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소태산 대종사가 언급한 가을들판의 곡식과 허수아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성당은 이제 구원을 주지 않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스스로 죄의

근원이면서도 스스로 죄사함을 내려 줄 수 있는 권능이 인간 본인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행동이 되지 않을 뿐인 것이다. 자각을 향한 진화의 역사적 과정을 성당을 통해 만끽하고 있을 뿐이다.

인류의 파멸을 앞에 두고 벌이는 공죄의식과 집단구원의 갈등.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 줄 종교의 출현을 갈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성 종교가 아닌,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충분히 축적된 종교적 가치 위에 선 열린 종교, 조직과 구성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들고 나옴이 자유로운 종교, 그것을 원한다.²⁾ 종교학적으로 이미 정의가 내려진 열려진 종교는 이를 말한다.³⁾

그것이 현재는 불법이다. 불란서(佛蘭西). 100여 년 전에 누가 번역했는지 놀라울 뿐이다. 佛蘭西는 불법이 서쪽에서 꽃을 피우다는 뜻이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 불교계의 전초기지다. 여러 명상 단체는 물론 불교 명상센터가 즐비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뜻이다. 공(空)에 바탕한 모든 제법의 현존성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교단없는 교단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승불교의 공사상은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조직이 되어도 끊임없이 원심분열로 나가는 불교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불교가 세계화되어 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 인류 전체를 보는 통합적 시각, 무상에 바탕한 삶의 유한성과 이를 초탈하는 방법의 구체성, 또 하나의 종교인 과학의 맹목성에 대한 반성적 대안 등등, 이러한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누누이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음 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종교의 미래는 더 이상 묻지 말자.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학이 필요하고,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학이, 건설을 위해서는 토목공학이 등등, 사회는 각각의 역할이 반드시 존재한다. 종교도 반드시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인간을 응시하는 것, 한없이 나약하거나 무자비하다가도 한없이 강하거나 자비스러운 인간의 변화난측한 심리를 여실히 바라보고, 인류의 불안한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의지가 곧 종교 자신의 존재이유이자 미래인 것이다. 따라서 그 존재의 방법은 딱 하나, 종교라고 하는 방법, 기업이 이윤을 남겨 기업의 가치를 각인시키듯 종교는 종교의 존재 방식을 시대에 맞게 당대의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존재의 이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2) 그 종교의 대안이 현재로는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격투기장이 대세다. 사실 대중은 그곳에서 기준의 종교가 가졌던 권위처럼 그것에 열광하며 굴복하고 있다. 단지 그 권위의 형태가 다소 다르다. 예를 들면, 가장 승률이 높은 말, 가장 홈런을 잘 치는 야구선수,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축구선수, 그 해에 가장 강한 격투기 선수가 예수이자 부처님이자 복신불 사은인 것이다. 그들을 보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배팅하고 아낌없이 표를 사고 흔쾌히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것이 현금이자 보시이자 유지비인 것이다. 울고 웃고 떠들고 소리치고 한숨 쉬다가 훔런 한방에 골 하나에 일주일간의 모든 스트레스가 확 달아난다. 그것이 정화이며, 카타르시스다. 그러나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또 다시 일상적인 고통을 맛본다는 점이다.

3) 열려진 종교와 닫혀진 종교. 전자는 불교처럼 사원에서의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출입이 자유로운 형태를, 후자는 기독교처럼 주일이라고 하는 엄격한 룰에 따라 예배를 보아야 종교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종교를 말한다.

III. 원불교의 혁신방향

필자는 9가지로 나누어보았다.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3가지이다. ①교법대로 할 것, ②대중의 공의에 따를 것, ③상식과 함께 할 것. 이와 관련된 법문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여기서는 일일이 밝히지 않겠다. 사실 이것에 바탕해서 교단을 혁신해 간다면, 이 9가지만이 아니라 90가지 900가지도 다 가능할 것이다.

1. 정체성 확립과 교학발전

1) 교법의 현실구현

교법 구현은 교단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필자는 이미 원티스 교역자 광장에 5가지 조항의 정법과 비법에 관한 사항을 문의했다. 그 5가지는 ①교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②출가 교역자의 결혼의 권리에 관한 것, ③법위와 종법사 선출의 문제, ④법강항마위의 생사해탈 및 견성의 문제, ⑤출가와 재가, 그리고 전무출신 사이의 차별 행정에 대한 정법이냐 비법이냐를 판단해주기를 수위단 사무처와 감찰원에 올렸다.⁴⁾ 이러한 문제는 교단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개혁방향 내지는 모든 문제점을 원점에서 돌아켜 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종경은 시대불로 오신 소태산 대종사의 깨침의 언어이다. 교단 대중의 공의를 얻어 편정된 유일한 법보(法寶)인 것이다. 그 가운데 서품, 교의품, 수행품은 유대교의 모세5경, 기독교의 4복음서와 같이 근본품에 해당한다. 15품 전체가 비중이다 같지만 이 전반부의 3품이야말로 교단 설립의 계기와 목적 및 방법, 초기역사,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내포한 핵심 경록(經錄)인 것이다. 사실 서품만 가지고도 교단은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교단은 과연 이 근본품에 비추어 과연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가를 돌아켜 보아야 한다. 정상교단은 이 근본품에 바탕하여 운영되는 교단을 말한다. 교단 정체성의 해법은 여기에 들어있다.

“우리는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 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는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을 주로 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이니라.”⁵⁾

여기에서 보듯 출가공부인의 의식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

4) 절차를 밟아서 출가단의 의견제출 사항으로 올려야만 답변이 있다 한다. 따라서 추후에 출가단에서 논의한 후 질의형식으로 올릴 예정이다.

5) 서품, 18장

과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긴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단의 근본 구조에 관한 중요한 언급이다. 교단이 이대로 실천했다고 한다면 과연 원불교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

이 말씀은 앞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과거 불교에 대해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공·상의 직업을 놓아 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써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금하게 되었으며”라고 비판을 가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해법이 바로 직업과 결혼인 것이다. 이미 불교의 가장 최후의 발달단계인 밀교(密敎)에서는 현실화되었다. 대승불교가 애초의 취지에는 맞지 않게 초기불교화해 가는 모습에 대한 반동이 밀교로 나타난 것이다. 결혼과 직업이라는 삶의 요소는 불법이 실현되어져야 할 장이 어디인지 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실천하지 않는 교단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교법과 교조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그 분의 말씀을 철두 철미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말로만 기도문에서 “대종사님 성령이시여”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혼과 직업의 자유는 교단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체다. 필자는 이러한 면에서 원불교의 모습은, 적어도 소태산 대종사님이 그리고자 했던 교단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기존의 불교와도 커다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하다. 오히려 기존의 불법을 뛰어넘는 불법구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교단의 실질적인 경제구조의 확립이라든가 세상을 향한 차별없는 남녀의 위상 실현은 말할 것도 없으며, 말 그대로 생활 속의 불법이라고 하는 교법실현의 정도이자 정공법을 제시하고 있음에 다름이 아니다. 전통불교와의 미묘한 차이이자 현격한 차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장시키는 바람에 더욱 요원해진 현재의 구조는 과연 대종사님이 지향하고자 했던 교단인지 반성해보아야 한다.⁶⁾ 기독교였다면 정법·비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사안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목숨 걸고 교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열과 의기는 다 식어버리고 만 것인가.⁷⁾

2세기의 원불교는 이러한 면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 천명(闡明)된 교법에 입각하여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구현하고자 했던 교단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교단이지 부처님이나 성현의 교단은 아닐 것이다.

6)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여지가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구성원이든 교법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실천이 중심이지 않는다면 정체성 확립은 요원한 것이다.

7) 다음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불법의 정의를 주장하기에 앞서 교법실천을 위한 정의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어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어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 오자는 것이니라. (중략) 모든 일을 응용할 때에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을 것이다.” (교의편 작업취사) “육근(六根)이 무사(無事)하면 집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수행편 무시선법)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즉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수행품 2장) “하물며 모든 인간이 다 필요로 하는 인도 정의의 정당한 법이리요.” (전망품 12장)

2) 불교와의 관계 확립

원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불교는 불교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차례 다루었다. 대종사님으로부터 역대 선진에 이르기까지 원불교를 불교로 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淵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會上)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⁸⁾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⁹⁾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지는 데에 노력하라. (중략)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혜·복(慧福)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¹⁰⁾

이 외에 무슨 첨가할 말이 더 있겠는가. 불법을 기반으로 한 종(宗)이든 교(敎)이든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과연 그 교단이 불법을 주체로 삼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흔히 유불선 삼교를 통합한 새로운 종교라는 말을 한다. 이도 옳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불교 토착화 과정 2천 년이 이 유불선 3교의 통합 과정이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보지 못했는가. 불교는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토착 종교와 융합해왔다. 그렇기에 유구한 생명력이 깃든 것이다. 최근 외학, 내학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만약에 내학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한 원불교학이라고 하고, 원불교 교전에서 불교, 도교, 유교와 관련된 언어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는가.

원불교는 불법의 전통과 역사, 사상을 자기화하여 시대에 맞게 교법을 내놓은 교단인 것이다. 그리고 명백히 부처님께 연원을 대셨고,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무결한 회상을 건설하겠다고 하셨다. 더욱이 배우거나 가르칠 것도 부처님의 도덕이라고 말씀하셨다. 중생의 혜복 두 길을 인도하기 위해 불법으로 주체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고, 장차 불법은 세계적 주교가 된다고까지 하셨다. 이 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그 누구도 이 이상 불교와의 관계를 명쾌히 설명할 수가 없다.

대승불교의 대승이라고 하는 말씀도 누차 언급되어 있다.¹¹⁾ 과연 이 대승은 어떤

8) 서품 2장.

9) 서품 3장

10) 서품 15장

11) “무아 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

대승을 말하는가. 불교역사와 사상에서 말하는 대승이 아닌가. 아니면 대종사님이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여 조어(造語)하신 것인가.

원불교의 특징적 성격은 회통 불교, 회통 종교이며, 그 방법으로는 참여 불교, 참여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교법의 총설의 말씀처럼 불법을 기반으로 모든 종교의 교지와 교리를 통합 활용하며, 역사적 현실의 장에서 불법을 구현하는 불교이자 종교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별다른 의미가 아니다. 불교인 이상에는 종교인 것이다. 종단이니 교단이니 하는 분류는 현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불법이 뛰어나다고 언급하신 것은 불법에 이미 종교성, 철학성, 윤리성 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으며, 현대 사회는 물론 미래 사회에도 불법이 야말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참되고 보편적인 진리관을 갖추고 있음을 체험으로써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립대학에 불교학과가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¹²⁾ 불교나 불교학을 배타적으로 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대종사님 말씀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형제교단으로서 얼마든지 성불제중을 위한 길에 힘을 합칠 수 있지 않는가. 오히려 분열된 불교교단이 원불교로 인해 화합하고 다른 종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불교의 세계적인 현상은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불법의 동세서점(東勢西漸)의 현실,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을 왜 마음깊이 새겨듣지 못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다. 원인을 찾아 처방하면 된다. 그 길만이 교법을 교법답게 실현하는 길이다. 원불교가 불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오도하여 원불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¹³⁾ 그리고 대종사님이 그러셨듯 깨달음을 비롯 수행과 신앙의 전 과정에 걸쳐 불법을 자기화하는 일에 교단 전체가 매진해야 한다.

3) 교학의 발전

이러한 교단의 정체성 학립과 더불어 교단의 2세기 혁신 방향은 당연히 교학에서 찾아야 한다. 한 마디로 교리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유로운 논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 스스로 이러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 교학의 근간은 해석학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 불법을 시대화, 생

로써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 성의를 다 하자는 것이니라” .(교의편 사대강령)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大乘禪)이요 삼학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수행편 무시선법)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려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수행편 참회문)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 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 수행의 빠른 길이라.” (수행품 47장)

12) 여기서는 학부를 말한다. 이러한 불교학과를 통해 교역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군소 불교계 교단의 교역자와 같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일반불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3) 분명히 언급하건데 이제 이 논쟁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활화, 대중화로 새롭게 해석한 것은 대종사님의 숙겁의 원력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2의 해석은 교학자의 뜻이다.

주법¹⁴⁾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교단을 일사분란하게 통치하는 데에 있어 권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총체적인 권위를 우리는 종법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교단 구성원의 대표자로서 교법을 이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교단의 통치를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협의로서는 종통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이를 넓은 의미로 확대한다면 우리 교단 구성원 각자가 법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주법이 되는 것이다. 법의 구현을 주도하는 주인이 법주이자 주법이다. 법의 정통성을 수호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단 구성원 전체가 주법이 되는 것이다. 주법은 각자가 법을 훼손하지 않고 삶 속에서 구현할 때 그 자격을 스스로 갖게 된다. 법이 그 누구에게 따로 독립되어 전해진다면 대경대법(大經大法)이라고 할 수 있는가.¹⁵⁾ 더구나 대종사님이 법의 공전(公傳)을 천명하셨음에다. 그러므로 법통은 우리 모두, 구성원 모두가 갖는 것이다. 법은 이미 원불교 교전으로 확정된 법보로써 이 법을 믿는 자, 이 법에 따라 수행하고 성불제중의 서원을 세운 자는 누구나 법통을 이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법통을 온전하게 이어받아 구현하도록 교법을 사회로 세계로 확장하는 작업이 교학의 역할인 것이다. 교법과 사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그 많은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역할이 바로 교학인 것이다. 물론 교학과 관련하여 교육의 문제도 있다.¹⁷⁾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학의 발전이 있어야 교육의 발전도 있는 것이다. 사회의 각 분야에 출중한 전문가의 언설에 왜 우리가 수긍하는가. 그것은 그가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사회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원불교학이라면 당연히 원불교학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교학자¹⁸⁾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¹⁹⁾

14) 주법과 종통에 대한 언급은 1962년 2월 24일 대산종사의 종법사 취임법문에 처음 등장한다. “첫째, 종법사는 주로 주법(主法)의 책임에 당하고 교정(教政)에 대하여서는 정수위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이단치교(以團治教)의 실(實)을 충분히 거양(舉揚)하도록 할 것이요, 과거의 예비수위단 같은 제도를 부활하고 재가 호법동지로써 특별 자문 제도(特別諮詢制度)를 신설하여 재가 출가의 중진(重鎮)동지들에게 더 밀접한 호법봉공(護法奉公)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에는 종법사의 임기가 일기(一期) 6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연임(連任)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바 앞으로는 보궐 임기(補闕任期)까지 합하여 3기 이상 연임치 않기로 법을 짜서 종통(宗統)을 전하고 받는데 원활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5) 대산종사 법어 3집, 제3수행편, 「정도로 가라」.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대각 이전에는 신령스러운 일이 수없이 나타나셨으나 대각 후에는 일체 감추시고 대경대법(大經大法)인 일원대도로 세계 구체에 나서셨다. 이 세상에 나온 법은 좋고 나쁘고 간에 하나도 버려지는 법이 없다. 다만 그 법이 크냐 작느냐, 또 전 인류가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도정법이 가름나는 것이다.”

16)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도가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당에서 설교나 경강을 위해 만든 교리 해설을 한 번이라도 수위단의 겸종을 거친 일이 있는가. 넓은 의미에서 교당에서는 교무가 주법인 것이다.

17)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예비교역자 교육을 말한다. 지면상 다를 수는 없으나, 추후에 연구, 발표하기로 하고, 간단히 언급하자면, 수행체계, 신앙체계, 학문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18) 교학자와 원불교학자를 같은 의미로 다루었다.

19) 대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학에 우수한 학자가 있을 때, 대학의 명성은 높아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유학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교단 구성원들이 아직도 교학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교단의 미래와 직결된 교학과 교육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는 그러한 면에서 원불교 100년기념 성업봉찬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주장했다. 물론 여기에는 인적, 물적 재원의 투자를 기본으로 한다.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

교학의 발전 방안으로는 다소 세밀하지만 잠깐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째, 영산, 익산의 교육기관, 대학원대학의 원불교학과를 일반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관리하더라도 재가자나 일반인의 원불교학에 대한 배움은 막을 이유가 없다. 재가자를 위한 디지털 대학의 원불교학과가 있지만 출가자의 전유물이자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교학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의 개방을 말한다.²⁰⁾ 교학은 이러한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고려하기 시작할 때,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학자의 선발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현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기획된 교학의 필요성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된 선발 요강, 공개된 선발 과정, 학문적 소양으로 충분한 틀을 갖춘 개개인의 연구 업적과 가능성의 낱낱이 공개되어 대중의 공감을 얻도록 까지 해야 한다.

셋째, 학술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학술원은 원불교학 발전을 위한 요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인재를 확보하여 안심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원불교사상연구원을 이러한 방향으로 승격시켜도 좋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학술원 산하에 다양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이 학술원의 고급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설치하여 교단 운영의 근간 형성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세계적인 학술지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인문학과 관련된 문학, 철학, 종교학, 역사학, 불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가 배출되고 있다. 원불교학도 또한 이러한 반열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불교학자들의 학문연구에 대한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다. 원불교학자의 각각의 역할이 학문을 통해 빛이 날 때, 교학과 교육, 아울러 도학도 더불어 향상될 것이다.

교육은 교단의 미래다. 그 교육을 담보하는 것은 교학의 수준이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발전의 동력이자 원불교 발전의 ABC다.

20) 향후 기숙사의 감독 체제를 거치지 않고도 교역자 고시를 통해 교역자를 선발하는 과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평가 반성 및 제도 개선

1) 20세기의 교회·교육·자선·해외교화 평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물거품과 같다. 앞의 세 가지 조건은 이러한 평가의 기본 전제가 된다. 이 3가지 사항, 교법의 현실구현, 불교와의 관계, 교학의 문제를 철저히 해부하고 이를 평가·반성해야 한다. 특히 교법의 왜곡, 불법에 대한 의도적 회피, 학문적 시민권조차 없는 교학의 현실을 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 교화가 안 되었다면 이러한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교화부진의 인과가 있다면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가 그것인 것이다. 교화·교육·자선·해외교화의 평가는 이러한 근본적 평가에 바탕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기업도 전년도의 재무재표를 통해 다음 해의 목표를 잡는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 수많은 조언을 듣는다. 하물며 교단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행하는 단기간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교적 환경은 기업의 환경보다는 복잡하고 인간과 사회의 총체적인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화에 대한 평가는 그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특징으로는 과거의 농촌형 교화방식, 좀 더 나아가 산업사회형 교화방식이었느니 하며 철 지난 교화방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교화 방식이 20세기에 어떠한 순역 기능을 해왔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후로 급격한 사회변동이 진행되어 어느 사회보다도 격렬했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우리는 최선을 다 해 왔던가. 일제시대 때는 카리스마를 가진 소태산 대종사님의 역사 자체가 교단사였다. 그 이후, 한반도의 분단, 전쟁과 기아, 군부에 의한 구테타, 개발 독재의 시기,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IMF의 경제 신탁통치,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갈등 등등 이러한 사회변동은 20세기 원불교 교화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며, 교법은 이에 대해 충분한 해법을 제시해주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교화와 어떻게 연계되었는가.

교화는 결국 그 사회의 대중들이 그 교단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교화자 개개인의 진지한 노력이 핵심이지만, 교화의 맥락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대중의 고뇌를 얼마나 끌어안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달려 있다.

교육도 앞에서도 논했지만 20세기 원불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것은 교단의 인재교육과 사회교육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평가다. 전자는 이미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후자는 유아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대안 교육,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현장이 성립되어 왔는지, 그러면서도 원불교의 교육 이념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생산했는지 냉철히 따져 물어야 한다.

자선 또한 교단의 3대 방향 가운데 하나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와의 관

계에 주목해야 한다. 산업혁명의 과정과 함께 성립된 근대적 의미의 국가 체제는 모든 것이 정치에 의해 통제된 가운데 확립되어 왔다. 특히 초기 종교교육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선은 국가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오늘날 북유럽에서 보는 고도의 복지국가체제는 국가와 사회의 합의로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바탕하여 자선 또한 한국적 상황과 함께 원불교의 참여는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가, 원불교의 자선의 이념은 확립되어 있는가, 궁극적으로 국가와의 관계 속에 원불교의 자선은 어떠한 역할을 맡아왔는가. 낙원세계를 지향하는 원불교의 이상세계 구현에 자선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가 등을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교화에 대한 평가는 보다 신중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일본의 오사카(大阪)에 해외 첫 교당을 연 의미로부터 현재까지의 해외 교화의 과정을 돌아보아야 한다. 황무지로부터 출발한 미국 중심의 해외교화 전략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놓았으며, 그 외 해외 각지의 교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교화의 20세기, 그 역사를 돌아보는 자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교단 1세기를 종결하는 의미에서 역사를 복기(復碁)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원불교의 종교적 가치가 현재 어떠한 위상으로 국내외에 확산되었는가를 재점검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볼 때, 이에 대한 21세기 비전을 수립하는데 올곧게 기여할 것이다.

2) 수위단과 중앙교의회 · 교정원 · 감찰원의 기능 분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위단은 Dharma의 기능을, 중앙교의회 · 교정원 · 감찰원은 Law의 기능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교단이 소규모였을 때는 구성원들이 만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수위단도 교단의 규모에 따라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또한 작은 교단이었지만 교단의 일이자 수행과 신앙의 표본으로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섬겨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제 시대도 변하고 교단의 구성원도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다. 출가의 숫자는 2000천여 명에 이르고, 재가들도 전국적인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교화단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교단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실의 운영은 다소 원만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수위단을 선출할 때에 후보자를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추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이단치교의 바른 방향이 아닌가. 수위단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수위단이 추천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다.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는 통용되어왔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수위단의 기능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헌 47조에는 종법사 선거로부터 교서편정, 교리의 최종 해석, 중요인사의 임면, 중요정책 등 11가지의 수위단의 결의사항이 들어 있다.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안까지 있으므로 교단의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수위단의 의결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교단이 아직은 기능분화가 되지 않았을 때의 조항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위단원만 되면 교단의 기관의 장으로 임명된다. 국가의 기능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맞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국무총리, 장관이나 도지사로 가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물론 종교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조계종의 원로원이나 종의회 의원이 총무원의 임원이나 교구장으로 임명되는가. 천주교의 추기경은 교황청에서 임명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 지역 사목 활동에서 가장 인정받는 신부가 추기경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이는 국가 단위의 문제이므로 수위단의 경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조계종이나 천주교는 최근 언론의 한 면을 장식했듯이 교단의 권력 집중이 불러온 폐해를 여실히 목격하고 있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교단중심주의에 의해 교역자들의 무소불위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이러한 점에 식상해 하고 있다. 조직은 반드시 권력에 의해 부패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정화시키기 위해 대중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원불교는 아직 이러한 점에는 이르지만 이미 수위단의 권력 집중에 대해 반감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교단의 운영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물론 그 근본적 원인과 책임은 선거에 참여한 대중들에게 있다.

이제 수위단은 교단 2세기를 맞아 거시적인 안목에서 법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확립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한정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법(교리)의 최종해석 한 가지 일만 해도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 문제인 동성애나 낙태, 자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답을 내릴 것인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위단은 어떠한 교법을 제시할 것인가. 세계평화수립에 대한 원불교 교법은 어떠한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원불교 교리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²¹⁾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교리의 최종적인 해석에서 나온다. 교황청의 교서를 보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교단은 수위단의 이러한 명쾌한 교리해석에 입각해 당당하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교당의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교법의 해석에 따라 교화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큰 권력이 있겠는가. 이것이 법치교단이며, 수위단의 최고이자 최종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최고의 법위에 오르신 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면 된다.

중앙교의회 · 교정원 · 감찰원은 교단의 운영 삼권으로 그 기능에 충실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예산 수립과 집행, 그리고 감독과 같은 것이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그

21) 이러한 일은 교황의 역할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연두교서나 공의회 등 이러한 역할이 수위단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는 것이다.

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정원에는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반 사회에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는 것을 한다. 이 양자의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약속한 목표에 대한 성과에 대해 대중이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지도부의 구성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²²⁾

마지막으로 총단회에 의결권과 특별감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 동안 교단의 수직적인 체제로 인해 대중들의 교정 참여에 대한 열의가 식어 버렸다. 총단회 참여도의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의제를 수위단이나 교정원에서 독점하기 때문이다.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중의 회의체²³⁾인 총단회가 권한을 회수하여 그 사안을 의결하거나 특별감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열린 교단 체제로 나아가는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3) 재가·출가 화합교단 방안

현재 일선 교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무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교단의 재정을 교도들에게 다 일임하고 나니 교도들이 교당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다. 한 달의 결산을 하고 나니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더라는 것이다. 교무의 용금이며, 교화비, 교화 상황 등을 비로소 교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더라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교무가 교당의 재정을 다 관리해왔다. 최근에는 이처럼 교도들에게 교당의 재정을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필자는 불교계에 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사찰이 어떻게 해서 스님들의 전유물이 되는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름없는 신도들로부터 유력한 재력가,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재(淨財)에 의해 이 사찰이 지금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교당도 마찬가지다. 교당 구석구석의 먼지 한 알로부터 땅 한 평에 이르기까지 교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교당은 이름없는 교도들로부터 신심깊은 오랜 교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분들의 합심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무는 이것을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 잠시 함께 운영하다가 인사에 의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교당은 그곳에 사는 교도들의 공동재산이다. 부처님도 수많은 중생들의 보시의 공덕에 의해 제생의세의 사업을 이루어 왔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 부처님의 재산이 아니다. 중생들이 불법 공동체를 위해 한 땀 한 땀 쌓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와 재가는 그 역할이 다소 다를 지라도 교단의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자신 제도를 받고, 제도를 행하는 주체자이다. 이것을 대종사님은 재가 출가 화합교단으로 분명히 천명하신 것이다. 위치와 처지는 다

22) 필자는 강의전담교수로 재직 중이다. 2년 후 재계약의 조건은 100% 학생들에 의한 평가와 그 평가의 상위 70% 이내에 들었을 때 가능하다.

23) 불교에서는 때때로 산중총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최근의 불교개혁은 여기에서 나왔다.

를지라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배를 탄 조타수이거나, 기관장이거나, 그 외의 선원이거나 아니면 손님, 혹은 선장이 되어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다. 교헌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되어 있다.

“(전문)이에 在家·出家 全敎徒가 다 같이 主人이 되어 一圓主義 思想에 立脚하여 共和制度의 體制와 十人一團의 教化로 참 文明世界를 建設하기 위하여 (하략) 제6종(법계)第6條(法系) ①法系는 少太山 大宗師로부터 비롯된다. ②法系는 人的 單傳으로 하지 아니하고 每 36年을 1代로 하여 共同傳受한다.

제9조(교역자) 本敎는 出家·在家의 男女 教役者를 養成하여 教化와 事業을 擔當하게 한다.

제10조(교당) 本敎는 大衆敎化의 場所로써 教徒와 人口의 集中地에 教堂을 設置하고 教徒의 日常生活에 應하도록 한다.”²⁴⁾

종래의 불교도 화합교단이라고 한다. 이를 현전승가와 사방승가로 보고, 후자야말로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놓고 보신 견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몸부림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원불교는 이미 이 현전승가에 완전히 사방승가마저 구현되어 있다. 늘 주장해 왔지만 무차별의 세계, 위의 교헌처럼 법계, 법위, 교화, 교당에 있어 출가자의 역할과 기능은 재가자와 동등하다. 아니 오히려 재가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징이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구현하고자 했던 승가의 이상형이 원불교에서 구현된 것이다. 공동체, 조합 등의 의미인 이 승가는 재가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인해 완전성을 띠게 된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단에서도 많은 측면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단의 모든 의결권은 출가 중심이다. 교당이나 교단의 살림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것은 출가자이다. 대종사님 재세시에 실현했던 재가 출가 화합교단의 구현은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 재가자의 교단 참여는 여러 기관에서 여전히 상부보다는 하부를 구성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재가자의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거의 모든 기능의 핵심 결정은 출가자가 하고 있다. 한편, 일부의 교육 기관에서 재가자들이 그 전공영역에 맞게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재가자들의 전문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헌에서 말하는 재가 출가 전교도가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각각의 역할 분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주인은 함께 일을 도모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닌가. 재가교도들에게도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는 깨달은 사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출가자라고 해서 다 깨달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믿음과 서원에 바탕하여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재가자라고 교단의 일을 책임지고 해내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재가자들에게도 교당과 교단의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거나 부여

24) 교헌

해야 한다. 더구나 교단이 갈수록 분화되어 가는 입장에서 출가자가 모든 것을 떠맡을 수는 없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교단의 구성원으로 성불제중 제생의세의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일률적 산술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당이든 교단이든 재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교단을 한층 더 활성화하는 데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교도님들이 법강항마위 이상이 되면 어마어마한 법위를 가진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런 분들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교화제제의 전환 및 사회교화

종교의 미래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교적 권력이 무화된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당 교화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교단 사활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화 환경의 변화는 이미 여러 기성 종단의 현실에서 여실히 목격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의 경우, 교황청의 국제적인 권위도 권위이지만, 선교의 역사는 한국 근세의 폐쇄적인 정치, 사회적 환경, 그리고 제국적 식민주의, 전쟁과 인권 및 경제적 민주화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고난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고통을 천주교의 선각자들은 자신의 신앙체계로 흡수하였으며, 그것을 추인한 것이 교단이다. 종교발전의 원칙에 따른 결과다. 교황청이나 교단 중심주의가 가능했다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놓고 끼어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교단은 하나의 계기를 부여했을 뿐이다.

불교 또한 조선시대의 환경을 놓고 본다면 기사회생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몇몇 뛰어난 선각자들의 목숨 건 구도행으로부터 불교는 개혁과 개혁을 거듭하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각 종교의 미래 상황은 종교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교당 교화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교단이 늘 언급해 왔듯이 교당 교화는 재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즉, 교당은 재가교도들의 교육, 훈련, 상담, 지도자의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재가교도들은 법좌(法座)의 형식으로 지역의 소구역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소그룹의 지도자는 물론 재가 교도이다. 이 법좌는 이미 일본의 입정교성회나 창가학회에서 성공한 경우다. 이 법좌가 바로 우리식으로는 교화단인 것이다. 이러한 소그룹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교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교당은 그 지역 교도의 상담을 맡아 언제든 삶의 어려움을 법으로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당에서 신입 교도들을 재가교도의 주도아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화는 재가자가 나서서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횡으로는 지역의 직능별 교도들을 묶어 지역사회의 교화

에 대응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교화단의 자발적인 세포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의 제안이다. 이 외에도 재가 교도가 교화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현재 도입하고 있는 원무제도의 활성화와도 관계가 있다. 이러저러한 교화 방법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교당 교무의 교화에 대한 방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담을 확산시키는 방법도 그 하나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벤치마킹을 통해 각 지역의 교화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이다. 잘 되는 곳에는 인사나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당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신도(神道)의 신사(神社)는 지역사회의 중심이다. 마을의 축제나 행사,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마을의 공회당이 된다. 신사의 앞마당은 어린이를 비롯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지역 대표의 설명을 듣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듣는 장이다. 그리고 대중에 의해 일을 결정한다. 마을의 축제는 신사가 중심이다. 이러한 역할은 물론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교당이 그 역할을 시작하면 된다. 현재로는 선, 요가, 명상, 아동의 공부방, 다문화 사회의 선도,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하나의 좋은 사례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사와 관련하여 교화 현장에서 바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 현재 궁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구 자치제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일단 놓더라도 그 지역의 교화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문제와 방법을 잘 알기 마련이다. 지역의 장(현재로는 교구장)은 그 교화의 터전에서 가장 능력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지금처럼 그 지역 교화를 담당해본 적이 없는 분이 낙하산식으로 교구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화는 인간을 대하는 것이다. 수 년 혹은 수십 년 쌓은 그 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의 해결을 교당이 맡았을 경우,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그래도 지역의 인맥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것은 오랜 동안의 지역 민심을 파악한 교화자만이 나설 수 있는 것이며, 그 기회를 포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가 지역에 쌓일 때, 교화는 옷섶에 가랑비 젖듯 서서히 젖어드는 것이다. 교화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간의 삶의 양식과 맞물릴 때, 비로소 튼튼한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해 오지 않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2) 교역자 후생공단의 활성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해야 좋을지 모르겠다.²⁵⁾ 교단도 후생공을 세워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교단품 15장의 말씀이 그 대의라고 할 수 있다.

25) 잘 못 언급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단의 정책방향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빼버리면 위선이 될 것이다. 솔직히 비난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다.

“대종사 물으시기를 “전무출신이 사가(私家)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공사에만 전력하게 하기 위하여, 곤궁한 사가는 교단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두면 어떠하겠는가.” 전 음광이 사뢰기를 “앞으로 반드시 그러한 제도가 서야 될 줄 아나이다. ” 또 물으시기를 “그러한 제도가 아직 서지 못한 때에 전무출신의 사가 형편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이르러서 이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서 대원이 사뢰기를 “만일, 보통 임원이면 적당한 기간을 주어 사가를 돌본 후 돌아오게 하옵고, 중요한 인물이면 회의의 결정을 얻어 임시로라도 교중에서 보조하는 길을 취하게 함이 좋을 듯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앞으로 그러한 제도가 시행될 때에 혹 보조를 바라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찌 하여야 하겠는가.” 유 허일이 사뢰기를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일반 전무출신의 사가 생활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기관이 총부 안에 서야 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말이 다 좋으니 앞으로 차차 그러한 제도를 세워서 활용해 보되, 교중의 형편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에는 기관을 적게 벌여서라도 현직에 있는 전무출신으로서 사가 일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²⁶⁾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교화자의 생활 대책 부진이 교화현장의 여러 큰 비중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선진님들도 사실 정토들의 회생이 없었다면 교단에 전일한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결혼한 남자 전무출신의 경우, 이 문제는 심각하다.

여기서는 대종사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세 가지, 즉, 사가생활의 교단 보조, 사가에서의 경제활동, 사가생활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기관 설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관을 적게 벌여서라도 전무출신이 사가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교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대중에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양한 기관, 예를 들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사회적인 급료를 받는 교육, 자선, 사업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연 전무출신의 생활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현실은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듯 교단 구성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다. 영육쌍전 이사병행이 교단의 교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차근차근 실천해 왔는가 하는 점을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얼핏 보면 모순같기도 하다. 전무출신은 교단에 오롯이 투신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볼 때, 결국은 불법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전무출신의 삶 또한 불법의 실천과 병행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소태산 대종사님은 사가의 삶을 제쳐놓고, 교법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셨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진정한 법의 정신은 사가를 초월하여 일체 중생의 삶을 내 집안 삼는 것이다.

26) 교단품 15장

일본의 재가종단인 입정교성회의 교역자들은 일본의 공무원 수준의 급료를 받는다고 한다. 주택 문제도 교단이 도와준다고 한다. 위의 대종사님의 말씀을 연장해 본다면 이러한 비슷한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한 마디로 교단 대중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진지하게 이끌어 내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다. 현재는 기관에 근무하며 사회 급료체계에 속하는 교무의 급료를 10%, 35%, 40%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교단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3종, 2종, 1종 교무로 나누고 있다.²⁷⁾

아무튼 이렇게 해서라도 빈익빈 부익부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교단적 요인은 무엇일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현실적 이유는 무엇일까. 대중들에게 이러한 설명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교단이 사가의 생활문제를 총단회의 안건으로 올려 대중들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 적이 있는가. 대중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법의 공과는 놓더라도 대종사님이 대중에게 직접 물으신 것처럼 대중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상되는 결론은 아마도 후생공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을 대중적 합의를 통해 끈질기게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그래야 공동체 스스로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단합하지 않겠는가.

3) 지역 및 세계 문제 해법 제시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 이제는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구는 이미 한 집안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터넷으로 지구상의 그 누구와도 연결이 가능하다. 필자는 현재 컴퓨터가 세 대다. 기숙사, 학교, 집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그 외의 공공장소를 가면 어디서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²⁸⁾ 세상은 이렇게 변했다! 이는 국가와 기업이 공존하면서 이루어낸 뛰어난 성과 중의 하나다.

한편으로는 국가와 기업은 자본주의를 통해 집단 그 자체의 논리를 펼쳐가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부국강병의 논리를, 기업은 기업 그 자체의 성장을 위해 지구의 자원을 무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하나의 지역적 통합체에 불과하다. 옛날에는 하나의 부족이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성립했으며, 이후에는 하나의 이념, 예를 들면 종교, 경제적 이해관계, 지리적 속성에 의해 국가가 창출되었다. 국가는 피라미드형 약육강식의 가장 큰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²⁹⁾

27) 본인은 이 분야에 무관심하다가 3월1일부로 원광대학에 강의전담교수로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28)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터넷 문화를 이끌어 간 것은 지역국가, 기업,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 가는 자본주라고 하는 이념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생존을 걸고 IMF 이후 인터넷 인프라를 건설한 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 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여러 통신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국내는 물론 다국적 기업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게 되었다.

29) 한국과 같은 샌드위치 국가가 생존을 위해 구축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무한대로 확

기업은 대체로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국가의 후원을 먹고 자란다. 성장해서도 여전히 국가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성장한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국가가 주는 세제(稅制) 혜택은 어마어마하다. 국민의 혈세가 대기업의 상업 활동에 여전히 든든한 보호막을 주고 있다. 국가와 기업은 공생의 관계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이름없는 소위 국민이라는 존재가 있다. 국가와 기업은 대중의 노동력을 무한히 활용하며 그 자체의 권력을 증폭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자. 국가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전투기, 군함 등의 전쟁 장비를 사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가를!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로 본토의 방위를 위해 60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책정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침공을 위해 쏟아 부은 비용과 인명살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의 경우 스텔스기 단 한 대를 사기 위해 수천억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 경제논리로도 이러한 비생산적인 비용은 국민의 눈물과 피땀어린 노동으로부터 나왔다.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평화라는 말은 과연 가장 비생산적인 관념에 불과한 것인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이러한 군비축소를 10%만 해도 가능하다. 단도직입적으로 종교의 역할은 이처럼 무의미하고 무모한 인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인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마음의 평화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하이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전쟁의 방식이 정교해지고, 그 논리 또한 정밀해지고 있다.

기업 또한 갈수록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다. 기업의 활동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윤을 무한대로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총수가 어떻게 평사원 월급의 수백 배, 수 천 배를 가져갈 수 있는가. 먹이사슬이 피라미드형으로 진행되어 아래로 갈수록 중소기업의 활동은 대기업을 주군으로 모시는 전국(戰國)시대와 다름이 없다. 기업의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비례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상생기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돌리고자 해서 나온 대안인 것이다.

유럽의 정신사는 소위 좌파의 세력이 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유명한 철학자, 학자, 지성인들 치고 마르크스주의의 좌파적 이념에 끊임없이 찬동하는 이유는 이러한 국가와 기업의 활동에 대해 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그들도 국가와 기업의 중요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류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 사상과 그 실험이 끝났다고 해도 인간에 대한 평등의식만큼은 끊임없이 견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철학과 사상의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정신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양심적 지식인 치고 자본주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이념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쓸고 있다. 때로는 국가를 때로는 다국적 기업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장시켜 주었다. 이제부터 이러한 인터넷 환경이 국가의 생존에 어떻게 순기능을 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는 그 자체의 모순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태산 대종사 또한 이러한 세계적 지성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니 이미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세계적인 성자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말씀이 곧 소태산 철학의 명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욕망을 선도하자는 것이다. 용심법을 여기에 적용하자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필자가 늘 지적했듯이 마음공부는 인간의 단순한 심리적인 오류를 바로 잡자는 것만이 아니라, 통찰지로써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르게 이끌어 내자는 데에 그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다. 공익심 없는 마음을 공익심 있는 마음으로 돌리자가 바로 그것 아닌가. 그리고 인류 전체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를 통한 정화된 세상, 즉 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그 구극(究極)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양심을 믿기도 했지만,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가 인간의 이기주의에 바탕한 경쟁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인간의 양면성, 즉, 양심으로 대변되는 명(明)과 이기적 마음인 무명(無明)의 양쪽을 설파했지만, 역사에는 후자 쪽으로 기울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천(天)의 손처럼 자동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날 보는 그대로다. 물질의 양극화, 예측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 진화된 악의 기능, 부의 무한하고도 의미없는 축적, 밀바닥 노동자의 절규, 같은 노동조건인 데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일상화, 물질을 둘러싼 정치인, 종교인과 같은 사회지도자의 이중적 언설과 행위, 향락산업의 발달과 성의 문란, 시각만으로 판단하는 전도된 인간의 판단능력의 저하³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도된 가치관이 물질과 정신의 불균형으로부터 오고 있다.

원불교 윤리학, 원불교 생사학, 원불교 생명학, 원불교 평화학, 원불교 환경학 등등의 제시로써 이러한 처방에 대응하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기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필자는 사요실천을 다르게 해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자력양성은 공공의 가치 실현, 지자본위는 다문화 사회(혹은 가치)의 존중, 타자녀 교육은 기회균등의 원칙 수립, 공동자 숭배는 사회적 합의의 확산으로 연구 중에 있다.³¹⁾

목표는 국가의 지역이기주의를 세계주의로, 기업 자체의 이윤논리를 사회적 이윤으로, 자본주의의 반인간화를 인간적 자본주의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를 제시하는 경제로, 중우(衆愚) 정치의 폐해를 공인받은 지성인, 철학자, 종교인의 가르침을 받는 정치로³²⁾, 대중의 합의를 사회의 지도적 원리로 전환하자는 것 등등이다.

30) 예를 들어 TV의 광고를 보라. 젊은 20대 여성의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 아름다움도 좋지만 성에 대한 사회적 도착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 전시하고 20대의 별거벗은 여성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31) 6월8일자 한국일보에는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② 금융사 채용 적격성 심사-도덕성·윤리성 높여 금융비리 발불이지 못하게, ③고소득자 세금공제 축소-씀씀이 클수록 더 공제, 저소득층보다 혜택, ④학력차별금지법 도입-이력서 학력란 삭제하고 승진차별 사라져야, ⑤화이트칼라·성범죄 무관용-대기업 총수 감형 악습, 친고죄 폐지 바람직”

요는 원불교의 종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단의 몇몇 교학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단 구성원 누구나 이러한 문제, 즉 물질과 정신의 조화 문제를 모든 교리적 차원에서 사회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전도된 이 사회와 세계의 문제를 치유해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원불교의 사회교화는 활성화되고, 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적이고도 보편적인 교단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IV. 맷는 말

원불교의 정책 방향은 이미 반 백주년 이후부터 현재의 3회 3대말 정책 계획에 이르기까지 잘 언급되어 있으므로 사실 여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그간 세운 정책은 교단의 운영 방향으로 손색이 없다. 교단도 이러한 결정사항을 꾸준히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대로 실천하면 필자의 논의는 쓸모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다.

단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정책의 실천 의지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개인적으로 교단의 지도부를 무한히 신뢰 한다. 필자의 이러한 논의는 그 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 교단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지 않겠는가.

본 주장의 골자는 이렇다. 이제는 교단의 정책은 교법에 근원하여 실천하자. 그 교법은 교전에 나타난 대로이다. 실천하다가 어려우면 대중의 공의를 얻자. 공의를 위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총부에 모여 논의 해보자.

사실 필자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 원기 100주년을 맞이하여 남은 3년 동안 원불교 공의회를 개최했으면 한다. 교단의 모든 사안에 대해 3년간 시도 때도 없이 논의했으면 한다. 모든 재가 출가 교도가 모여 한 가지씩 놓고 치열한 의견의 공방 을 벌여 그 나온 결정안을 가지고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갔으면 한다. 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대중이 내놓은 결정에 바탕한 것이므로 대중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아, 이점이 모자랐으니 더 노력해보자 라고 하면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교단은 위기다. 교당에 법회 설교를 위해 또는 화요, 목요 교리 공부 시간에 가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반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교당의 한 교도님이 “이제 저희들이 죽고 나면 교당에 대를 이을 교도들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 해주었다. 실제로 그렇다. 연로하신 교도님들이 교당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이분들을 채울 새로운 세대가 없다. 학생교화는 답보상태이고, 청년교화 마찬 가지이다.

현재 안암과 같은 교당은 교단의 희망이다. 그러한 교당이 늘어나길 바랄 뿐이다.

32) 이러한 방향으로는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철인(哲人) 정치로 제시하였다. 단 플라톤은 철학을 비롯한 제 학문을 학습한 철학자들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화요 교리공부 시간에 50여 명의 교도 가운데 반 이상이 청년 교도였다. 이러한 교당은 세대교체도 자연스러울 것이다. 주임교무인 김제원 교무도 결혼한 청년교도를 일반 교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한다. 교당의 교화 체제는 이처럼 청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도의 감소는 물론이고 교당과 교단의 경제 체제는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단의 모든 정책 운영을 교화에 집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교단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한 교육이며, 자선이며, 사업이다. 그리고 그 근본은 성불제중이라고 하는 서원에 바탕해야 한다. 말하자면 개인이 든 교단이든 성불제중이라고 하는 화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1의제를 실천하는 방법을 다른 말씀으로 이미 소태산 대종사님이 누누이 언급하셨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本末)과 주종(主從)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主)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從)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33)

이처럼 마지막 총체적인 결론은 교단 정책도 결국은 선후, 주종, 본말에 근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말씀을 개인의 삶과 교단 정책 방향의 가장 근원적인 지표이자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의 언급은 사족일 뿐이다.

33) 인도품 5장.